

印刷文化史에 대한 考察

— 晉州地域을 中心으로 —

장 추 남

金湖印刷

Study on the History of Printing Culture

— The Center of Jin-Ju Areas —

Chu Nam Jang

1. 序 論

萬物の 靈長인 人間은 애초에 말로써 自己의 생각을 나타내었고, 다음에는 그 생각을 남기기 위해 岩石, 獸骨, 木皮 등에다 그림을 그렸으며, 다시 그 그림에서 文字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文字를 使用하여 思想과 事實을 永久히 保存하고 또한 널리 알리려고 印刷術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美國의 書誌學者 맥머트리(McMurtrie, D.C.)는 그의 著書에서 “人類의 文化史에 있어서 印刷術의 發明보다 더 重要한 일은 없다. 人間의 모든 分野에 걸친 일과 經驗은 印刷라는 媒介를 통하여 널리, 높게, 멀리, 깊이 퍼져서 無知와 邪教 抑壓으로부터 人類를 解放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印刷媒體인 新聞, 雜誌, 書籍이 人間의 思想과 行動에 끼친 威力은 世界 各國의 爲政者들이 國民의 言論을 調整한다는 名目으로 新聞과 出版에 여러가지 制限을 加하고 또 그것을 抑壓한 것으로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곧 印刷의 歷史는 人類의 歷史를 構成하는데 있어서 不可缺의 重大한 要素인 것이다.

어는 나라이든 政治, 經濟, 宗教, 教育, 社會, 思想, 哲學, 文學, 藝術 等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印刷術을 빌리지 않고는 充分한 活動과 成果를 거둘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印刷가 世界의 産業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印刷가 人間의 歷史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印刷에 있어 우리 나라의 印刷史는 淸州의 興德寺址에서 發掘된 『直指心體要節』이 世界 最古의 金屬活字本임이 證明되었고 또한 우리 나라 유엔 加入 記念으로 『月印千江之曲』을 印刷한 金屬活字板틀과 影印本 및 印刷된 판틀을 擴大한 장식품이 UN本部에 寄贈되었는데 이 『月印千江之曲』은 獨逸의 구텐베르크의 金屬活字印刷機의 發明보다 앞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가 世界 最初의 金屬活字 發明國이며 또한 國際적으로 알려진 찬란한 印刷史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이에 또한 地方印刷文化 歷史로서는 晉州에 西洋式 近代活版印刷術이 導入된 것이 80餘年이라는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어 他地方에 앞섰던 것은 文化都市 晉州의 자랑이요 印刷人의 矜持를 심어주는 歷史的인 事實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晉州地域을 中心으로 수집한 기존의 문헌과 資料를 바탕으로 한정된 지면관계상 개략적으로 印刷文化史를 살피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 印刷文化의 史的 考察

1. 日帝時代

頭流文化圈인 晉州地域은 예로부터 많은 學者들이 學問活動을 해 왔는데 특히 朝鮮時代에 있어 南冥 曹植先生과 그 後學들에 의해 本板으로 만든 많은 文集들을 남겨 놓은 記錄들이 있고 各書院, 書堂에서 教科書를 出版普及하여 後者들에게 學問을 研磨하는데 莫大한 役割을 한 것은 後日 다시 밝히겠으나 西洋式 近代活版印刷術의 導入은 慶南日報의 創刊으로부터 그 記錄이 있기에 晉州地域의 印刷史을 記述코자 한다.

地方新聞으로서의 國內 最初에 創刊된 慶南日報가 1909年 8月 19日에 政府의 新聞發行 許可가 있자 慶南日報社의 關與者들은 新聞發行에 必需品인 印刷施設의 確保에 關心을 돌렸다.

이들은 서울 校洞에 位置한 右文館 活版所라는 印刷所의 施設을 買入하고자 하였다.

右文館의 建物과 印刷施設은 이보다 먼저 서울에서 新聞創刊을 準備하던 大同日報社에서 買入하기로 契約한 바 있었으나 財政的인 問題로 賣買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印刷施設의 確保가 主導의 役割을 맡아왔던 洪川郡守 등 前官職을 지낸 金榮鎭과 金弘祚 金琪邵 등 慶南의 有志들은 印刷施設을 確保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차에 慶南觀察使 黃鐵의 支援 加勢를 받아 1909年 9月 中旬에 右文館活版所 印刷施設을 契約하게 되었고 이데 따라 新聞發刊事業은 더욱 具體化 되었던 것이다.

곧 이어 右文館의 印刷施設은 晉州郡 城內一洞 慶南日報社에 設置되었다.

創刊 當時로부터 主筆을 맡아왔던 韋庵 張志淵이 招聘으로 交分이 있었던 金榮鎭이 印刷시설을 買入하기 위해 上京했을 때 當年 9月 初旬에 이루어졌다 한다.

1911年 1月 8日字로 慶南日報의 印刷人이 된 李期弘은 創刊當時 印刷人이었던 李後基의 後任이며 이는 右文館 印刷施設을 買入할 때 印刷技術者로 발탁되어 李基弘뿐만 아니고 相當한 數의 技術者를 帶同하여 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理由로는 1909年 11月 24日字 大韓每日申報의 보도에 『慶南日報는 비록 地方新聞이나 그 發行部數가 8千餘部나 된다』고 하였다.

또한 印刷施設의 規模도 상당했다는 事實은 다음의 自體 廣告文으로 充分히 헤아릴 수 있다.

『1910年 3月 16日字 - 本社에서 各官廳及 面里長이 公用하는 各種 印刷物과 各 名啣等 屬을 精密 善良히 印刷하는 바 價格도 他印刷所보다 廉歇하오니 內外國 檢君子는 何道 何郡을 勿論하고 郵便으로 式樣만 通報하시면 依據印送할터이니 照亮하심을 敬要』

이는 新聞外에 外刊 印刷物도 取扱한다는 것과 他 印刷所보다 優秀한 製品을 廉價로 納品해 주겠다는 廣告內容인데 그 內容中 他 印刷所라는 말은 晉州에 日本人이 印刷所와 文房具 紙類 取扱을 兼한 韓國人 印刷所가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印刷 20年史中 韓國印刷史編에 『金弘祚는 우리 나라에서 最初로 株式會社 印刷所를 設立한 사람이다. 그는 1909年 10月 15日 慶尙南道 晉州郡 城內一洞에서 株式會社 慶南日報를 發刊시켰다.』라고 했다.

1989年 11月 25日 復刊된 新慶南日報가 外刊物 取扱을 위해 1990年 8月 25日 晉州市 當局에 印刷所 登錄을 필한 것과 같이 印刷業界에 日本人이 8割 以上 占有하고 있었던 1910年代에 그에 競合하는 外刊物 取扱을 위해 印刷所 登錄이 되어 우리 나라 最初의 株式會社 印刷所 設立 許可業體가 된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慶南日報가 1915年 1月 創刊되었고 그로부터 20年後인 1935年 9月 1日 「嶺南春秋」가 創刊되었다. 「嶺南春秋」는 新聞 스타일의 타블로이드版 16面の 月刊이었는데 發行 兼 編輯人 申鉉壽, 印刷人은 晉陽堂印刷所 姜周秀로 되어있다.

創刊號를 印刷한 晉陽堂印刷所 施設의 規模面이 相當했다고 엿볼 수 있으나 日本人 印刷所의 施設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第9號부터는 印刷人이 北川戊三郎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그림인쇄가 나오기 始作했고 活字의 모양도 美麗해진 것으로 보아 日本人 印刷所의 施設이 優秀했다는 것이 立證된다.

1936年 8月 15日 第12號 印刷人이 北川戊三郎으로 되어있고 9月 15日 第13號 創刊 1周年記念紙에는 印刷人이 晉州 開文社로 되어 있다.

이 創刊 1周年記念紙에서 부터 石版印刷을 한 것이 보이는데 鮮명한 人物寫眞 등이 印刷된 것을 볼 때 晉州地方 印刷術의 큰 發展의 契機라 보여진다.

開文社에서는 活版部와 石版部를 設置하여 포스타 등을 製作한다는 廣告도 掲載되어 있다.

이러한 開文社의 石版印刷 導入은 晉州地方 平版印刷의 始初였다.

晉州 著名會社 紹介欄에 印刷 文具 晉州開文社, 晉陽印刷所, 雜貨印刷山縣文具店, 慶一印刷, 合同印刷所 등 5個 印刷業體가 紹介되어 있다.

1936年 1月 1日 創刊된 中央公衆報는 發行人 鄭弼和, 印刷人 姜周秀로 되어 있어 「嶺南春秋」 創刊號를 印刷한 晉陽堂印刷所가 다시 中央公衆報의 創刊號 印刷을 맡았던 것이다.

中央公衆報는 1937年 2月 1日 第14號로 끝나고 「南鮮公論」이라 題號를 改稱하여 當年 3月 1日 第15號로 紙齡이 이어지면서 繼續 晉陽堂印刷所에서 印刷되었던 것이 1938年 1月 1日 第22號부터 印刷人이 北川戊三郎으로 바뀌었다.

1941年 12月 26日 第64號는 印刷人이 晉州合同印刷株式會社로 되어있고 活字의 모양이 晉州開文社(北川戊三郎)의 것 보다 美麗해진 것을 볼 때 施設이 補完된 것이 보이는데 그때 당시 日帝末葉에 群小業體 統合의 指示에 의해 合同으로 하면서 法人體로 만들었으며 統合指示의 理由는 韓國人 印刷業體 強壓과 古鐵 등 物資不足 때문이라 한다.

1940年代初까지 日本人이 經營하던 晉州 開文社를 金千洙가 引受, 經營해 오면서 鎭海海軍本部의 印刷을 맡게 되었는데 本部에는 勿論 感興, 淸律 등 般便 또는 貨物車便으로 大量 印刷物을 製作 納品해 왔는데 從業員의 數도 100餘名에 이르렀고 施設도 相當水準의 石版施設, 活版施設 등과 많은 活字保有業體로 地方印刷로는 단연 제일의 規模였다 한다.

2. 解放後~60年代

이러한 印刷施設의 規模를 갖추고 있던 開文社는 解放後 慶南日報 重創刊(1946. 3. 1)에 큰 役割을 하였다.

다시말하자면 開文社의 印刷施設로 인해 慶南日報 重創刊이 容易했다는 것이다. 當時 重創刊發起人에 許萬彩, 文海述 그리고 開文社의 金千洙 등 三人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充分하다.

金千洙의 弟 金萬興의 考證에 의하면 開文社를 經營하던 金千洙가 그의 弟 金三萬에게 工作機械를 購入, 鐵工所를 設立해 준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農機械構造 大 메이커인 大同工業株式會社라 한다.

이 大同工業社에서 우리 나라 처음으로 輪轉印刷機를 만들어 慶南日報에 設置하여 新聞印刷을 1963년부터 1968년까지 使用했다 한다.

1950年代初에만해도 新聞社를 除外한 印刷所의 施設들이 거의 足踏式 活版機 등으로 印刷物이 製作되고 있을 무렵 晉州印刷所 河東逵에 의해 프린트가 始作되었고 이어 孔版印刷가 導入되어 各種 출판물이 이에 의해 많이 刊行되었다. 50年代 中盤에 文房具, 노트 제작을 兼하여 印刷業을 하던 學友社 朴泳相은 活版全紙機를 導入하여 대단위 노트제작공장을 運營하였으며, 한편 東洋印刷所 金영규는 활자 주조기를 설치, 活字 생산을 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서는 경상남도 인쇄공업협동조합이 晉州에 位置하게 되어 晉州의 印刷業界가 活氣차게 움직였다.

慶尙南道 印刷工業協同組合은 1964年 1月 釜山市가 直轄市로 昇格됨에 따라 分離 獨立되었는데 이 때 初代理事長에 周植印刷所 金允植이 1964年 1月 26日 就任하였고 2代 嶺南印刷所 河金永, 3代에 中央印刷所 金吉秀, 4代에는 初代 金允植이 다시 맡아 오는 동안 晉州 活版印刷의 中興期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71年 5月 27日 金二坤이 5代 理事長을 맡으면서 慶尙南道 印刷工業協同組合은 馬山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70年代 以後

1970年代初에 콜로타이프印刷가 寫眞業者에 의해 설치되어 앨범印刷를 전문으로 해 왔으나 大都市 즉, 釜山, 大邱 등의 오프셋印刷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다. 70年代 中盤에 晉州에도 오프셋 印刷機가 몇몇 業者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寫眞製版이나 寫眞植字등의 시설 全無로 어려움이 따랐으며, 機械는 모두 手動이었다. 한편 이때 淸打組版機와 마스터印刷가 登場하게 되었다.

1970年代 末에는 頭流文化圈의 印刷文化가 一大 革新的 改革期를 맞게 되었다. 金湖印刷에서 1979年 11月 獨逸 하이델베르크 自動오프셋印刷機, 寫眞製版施設, 寫眞植字機 등의 設置稼動과 先進技術 導入으로 印刷文化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칼라印刷가 始作되면서 落後되었던 晉州地方 印刷文化에 急進的 發展의 契機를 이루었던 것이다.

1980년대 中盤부터는 東亞印刷社를 비롯하여 自動오프셋印刷機가 차츰 導入 設置되기 始作하였고 80年代末에는 컴퓨터組版機가 登場되어 凹凸組版印刷時代로 접어 들게 되었다.

晋州市 印刷所登錄台帳에 의하면 新規印刷登錄法(1961. 12. 30 制定)施設以前의 業體現況은 記錄保存이 未備, 大多數의 未登錄으로 把握할 수 없었으나, 登錄番號 第1號 周植印刷所 金允植으로부터 1991年 11月 現在 第119號에 이르고 있는 中 現在 72個 業體, 廢業登錄番號 10個業體, 缺番37個였었다.

現在 72個 登錄業體中 40餘個業體가 1986年以後 登錄되어 있어 最近 業體 스스로의 登錄과 當局의 督勵로 거의가 登錄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未登錄業體가 10餘個 있을 것으로 보아 現在 實際 印刷所의 數는 90餘 業體가 될 것으로 看做된다.

위 登錄狀況에서 보면 37個이 缺番에 대한 公簿上의 記錄은 없으나 그간 台帳 整理過程에서 오래된 廢業體들을 削除, 缺番處理한 것으로 보아 수많은 印刷業體, 印刷人들이 晋州의 印刷文化를 지켜오면서 스쳐간 흔적으로 보이나 記錄의 자취는 하나없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傳統의 家業으로 代를 이어가는 業體가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1980年以後 新規, 開業, 登錄된 業體가 18個業體로서 現在 印刷所 全體 數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의가 小規模의 業體이고, 그 中 慶南日報社는 1909年 近代式 印刷術의 씨를 뿌렸듯이 四色 輪轉印刷機와 電算組版施設을 갖추어 오늘에 또한 晋州地方 印刷文化史에 큰 記錄을 남기고 있다.

Ⅲ. 결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人類史上 文字를 使用하여 事實을 永久히 保存하고 또한 널리 알리려고 印刷術이 發展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地域印刷人은 地方印刷文化史를 記錄으로 남겨 놓은 것이 全無한 狀態이다.

그나마 오직 남겨진 資料는 慶南日報를 비롯하여 綿綿히 이어져온 言論의 脈과 日帝時代에 몸담아 왔던 元老印刷人 金萬興, 李壽恒, 安炳日 등의 貴중한 考證으로 整理해 볼 수 있었다.

地方印刷文化史에 있어서 어느 地域이나 地方보다 앞섰던 文化都市 晋州의 印刷文化가 現今 落後된 地域經濟의 어려움 속에서 大規模의 施設은 거의 없어도 그 業體數로는 26萬 人口의 都市규모에 100個業體에 이르고 있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너무 많은 業體數는 印刷文化發展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또한 文化都市의 證票일 것이다.

本稿가 晋州地域印刷文化史를 밝히는 데는 비록 미흡한 資料로 概略的인 것만을 중심으로 記述되었지만 後日 具體的인 것을 整理하는데 多少 參考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1) 崔起榮,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 一潮閣」, 1991.
- 2) 勝前伊助, 「晋州大觀」, 晋州大觀社, 1941.
- 3) 大韓印刷工業協同組合中央會, 「印聯20年史」, 1982.
- 4) 大韓印刷文化協會, 「印刷新聞」, 1991.
- 5) 大韓印刷文化協會, 「鄉土의 精氣」, 金湖出版社, 1984.
- 6) 晋州市, 「印刷所登錄台帳」, 1961~1991.
- 7) 晋州市 「내고장 傳統」, 1983.